

올해 LG 상대 홈 승률 85.7%... 한화, 안방서 흐름 바꾼다

정규시즌 LG 상대 홈 성적 5승1무1패... 한국시리즈 4~5차전도 대전서 개최

올해 대전에서 LG 트윈스를 상대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안방에서 한국시리즈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각오다.

한화는 지난 29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솔랭크 KBO 포스트 시즌 KS 3차전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7-3으로 역전승을 거뒀다.

지난 26~27일 잠실에서 열렸던 KS 1, 2차전을 내리 패하며 공지에 몰렸던 한화는 1승을 따내면서 반격의 신호탄을 쏘았다.

공교롭게도 올해 KS 첫 승을 따낸 장소가 안방인 대전이다. 한화는 올해 정규시즌에서 홈 승률이 0.620으로 10개 구단 중에서 가장 높았다.

홈에서의 엄청난 기세는 가을야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화는 대전에서 벌어진 삼성과의 플레이오프 3경기에서 2승 1패를 기록, 시리즈 전적 3승 2패로 KS 진출에 성공했다. 특히 플레이오프 최종 5차전 삼성과의 홈 경기에서 팬들의 열렬한 응원에 힘입어 11-2로 완승을 거뒀다.

아울러 한화는 KS 3차전도 잡으면서 홈에서 꾸준한 강세를 보였다.

30일 펼쳐지는 KS 4차전 역시 대전에서 개최된다. 한화는 홈에서 LG만 만나면 맹위를 떨쳤다.

올해 정규시즌에서 LG와 7차례 맞붙어



지난 29일 대전 중구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2025 KBO 한국시리즈 3차전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에서 한화 이글스가 7-3으로 승리를 거둔 뒤 기쁨을 나누고 있다. /뉴스시스

5승 1무 1패로 압도했다. 여기에 KS 3차전 승리까지 포함하면 올해 한화의 LG전 홈 승률은 무려 85.7%다. KS 3차전에 이어 4차전도 안방에서 열리는 만큼 한화로서는 시리즈의 균형을 맞출 절호의 기회다.

한화는 노시환, 문현빈, 하주석, 최재훈 등이 가을야구에서 뜨거운 타격감을 과시

중이고, KS 3차전에서 1%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한 마무리 투수 김서현의 반응이 고무적이다. KS 4차전 선발 마운드에 오르는 외국인 투수 라이언 와이스의 활약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와이스는 지난 19일 삼성과의 PO 2차전에 선발 등판해 4이닝 9피안타 5실점으로

고전했으나 24일 5차전에 구원 등판해 4이닝을 4피안타 4탈삼진 1실점으로 막고 세이브를 올렸다.

한화는 KS 4차전을 승리로 장식하면 5차전 또한 대전에서 열리기 때문에 내친 김에 시리즈 역전까지 노려볼 수 있다. /뉴스시스

프로축구 K리그 최고의 골잡이들이 남은 시즌 치열하게 득점왕 경쟁을 벌인다.

하나는 K리그1 2025가 33라운드까지의 정규 라운드를 지나 34라운드부터 파이널 라운드(스플릿 라운드)에 돌입했다.

파이널 A(상위 스플릿)는 다음 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진출권 확보를 위해, 파이널 B(하위 스플릿)은 K리그2 강등을 피하기 위해 사활을 건다.

순위 싸움 못지않게 득점왕 경쟁도 치열하게 펼쳐진다.

34라운드까지 진행된 현재 득점왕 경쟁은 ▲수원FC 싸박(16골) ▲포항 스틸러스 이호재 ▲전북 현대 전진우(이상 15골) ▲대전하나시티즌 주민규(14골) ▲전북 콤파뇨 ▲FC안양 모파 ▲울산 HD 이동경(이상 13골)으로 좁혀졌다.

K리그 득점 순위는 골 수가 같을 경우 더 적은 경기를 뒀던 선수가 높은 순위를 차

막바지 접어들 K리그1, 순위 싸움만큼 득점왕 경쟁도 '후끈'

싸박·이호재·전진우·주민규 등 7명 경쟁

지한다. 리그 종료까지 4경기가 남은 가운데 싸박부터 이동경까지 7명의 선수가 각자 팀을 이끌고 골 사냥에 나선다.

먼저 현 득점 선두인 싸박은 지난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득점포를 가동했다.

23라운드부터 25라운드까지 4경기 연속골을 넣는 등 하반기에만 11골을 쏟아내며 랭킹 최상단을 꿰찼다.

이호재는 프로 데뷔 후 첫 두 자릿수 득점으로 흥명보호 축구대표팀에 발탁되는 등 커리어하이로 달리는 중이다.

특히 직전 5경기 동안 4골을 터뜨려 득점왕 경쟁자들 중 가장 날카로운 결정력을 뽐내고 있다.

전진우는 전북의 역사적인 통산 10번째

리그 우승에 이어 득점왕 등극에 도전한다.

우승 직후 전진우는 "20골 고지까지 밟는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내 득점왕을 위해) 페널티킥도 밀어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며 동료들의 지원을 기대했다.

주민규는 직전 포항전에서 페널티킥으로 골망을 갈라 14호골을 터뜨렸다.

그는 2021시즌 제주 유나이티드(현 제주SK) 시절, 2023시즌 울산 현대(현 울산HD) 시절에 이어 통산 3번째 K리그1 득점왕을 바라본다.

콤파뇨는 전북의 조기 우승이 확정됐던 지난 18일 수원FC전에서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직전 김천 상무전도 출전하지 못한 가

운데 회복이 늦어지면 득점왕 경쟁을 이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모파는 2024시즌 천안시FC 소속으로 16골을 터뜨려 K리그2 득점왕에 오른 데 이어 올 시즌 안양 소속으로 K리그1 득점왕에 도전한다.

현재까지 K리그2 득점왕과 K리그1 득점왕을 연속으로 수상한 선수는 2018~2019시즌 경남FC 말경(현 울산)이 유일하다. 마지막으로 이동경은 전역 후 울산에 복귀해 잔류 싸움과 득점왕 경쟁을 벌인다.

이동경은 현재 11어시스트로 도움 랭킹도 1위에 올라 있어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노린다.

한편 일곱 골잡이 가운데 20골 고지를 넘을 선수가 탄생할지도 관심이다.

K리그1 득점왕은 2021시즌 주민규(22골) 이후 4년 연속 20골 이하에 그쳤다. /뉴스시스



완도군청 역도실업팀, 전국체육대회서 메달 4개 획득

완도군청 역도실업팀은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메달 4개를 목에 걸었다.

남자 일반부 김동민(61kg) 선수가 인상 2위, 합계 3위로 은메달, 동메달을 획득했고, 강민우(89kg) 선수가 인상 3위, 합계 2위로 은메달,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임정희(+87kg) 선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꾸준한 기량을 과시했으나 이번 대회를 준비하던 중 어깨 부상으로 고심 끝에 기권을 결정했다.

서호철 완도군청 역도실업팀 감독은 "이번 대회를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묵묵히 소화해 온 선수들이 대견하다"면서 "다음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해 더 값진 결실을 거두겠다"라고 전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손흥민 연봉 160억원 'MLS 전체 2위'... 1위는 291억원 메시

구단별로는 인터 마이애미가 약 700억원으로 1위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FC(LAFC)의 '슈퍼 스타' 손흥민이 리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MLS 선수협회가 29일(현지 시간) 공개한 리그 연봉 자료에 따르면 손흥민의 총 보상 보수는 1120만 달러(약 160억원)다.

기본급은 1040만 달러(약 148억원)며, 보장 보수는 계약금과 마케팅 보너스 등이 포함된다.

선수들의 성과에 따른 보너스는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아 집계되지 않았다

손흥민은 지난 8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를 떠나 LAFC와 2027년까지 계약했다. 추가로 2029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옵션도 있다.

손흥민의 총 보상 보수는 MLS에서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 다음으로 높다.

메시는 2040만 달러(약 291억원)의 연봉을 받는다.

3위는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 동료인 미드필더 세르히오 부스케츠(877만4996달러 약 126억원)다. 부스케츠는 이번 시즌

종료 후 은퇴한다.

4위는 애들랜트 유나이티드의 공격수 미겔 알미론(787만1000달러 약 113억원), 5위는 샌디에이고FC의 공격수 이르빙 로사노(763만3333달러 약 109억원)다.

MLS는 구단별 연봉 총액 상한제인 샐러리캡 제도를 시행하는데, 구단별로 최대 3명까지 '지정 선수' 자격을 부여해 예외가 허용된다.

LAFC에선 손흥민과 드니 부앙가, 위고 요리스가 해당한다.

구단별 연봉 지출로는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가 4897만 달러(약 700억원)로 가장 많고, LAFC가 3010만 달러(약 430억원)로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연봉을 지출하는 팀은 CF몬트리올로 선수단 총연봉은 1292만 달러(약 185억원)다.

한편 올 시즌 MLS 전체 선수 평균 보장 보수는 63만2809달러(약 9억원)로 지난해보다 6.1% 상승했다. /뉴스시스

☎062-525-9775

마법의 국향랜드로 초대합니다

국향 대전

HAM PYEONG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

10.24.(금) - 11.09.(일)

함평엑스포공원